

# “반려견과 더불어 살기, 신발부터 만들어 졌어요”



## 청년, 청년을 말하다

<20> 더기코리아 전혜린 대표

배우·인테리어디자이너 꿈꾸던 여학생  
기르던 강아지 신발 찾다 산책용품 개발 시작  
호텔·유통회사 등서 창업 수업...29살에 행동 개시  
프리미엄급 애견용 신발 브랜드 ‘더기’로 승부  
“책·멘토·운동 가까이...나를 믿고 큰 걸음 걷는다”



▲중국에서 열린 애견용 신발 브랜드 ‘더기’의 상품 전시 모습.



▲상품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전혜린 대표.

배우와 인테리어디자이너가 꿈이었던 한 여학생이 창업을 꿈꾸기 시작했다. 기르던 강아지와 산책을 다니고 싶었는데, 강아지 발이 약해 알맞은 신발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예 스스로 착용감과 통기성이 좋은 강아지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꿈은 현실이 됐다. 그 여학생이 오늘날 더기코리아의 전혜린 대표다.

더기코리아는 2013년부터 반려동물산책 용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녀도 처음부터 창업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리조트사업에 관심을 뒤 신라호텔에 입사하고, 와인소믈리에로 스카웃되기도 했다. 그러다 창업을 목표로 유통회사에 취직했고, 29살이 되자 무턱대고 사업계획서를 쓰기 시작했다.

전 대표는 처음 창업을 하면서 정부지원을 받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지원이 따르는 만큼 제약도 따랐다.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과 실제 시장과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사업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창업정책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불필요한 절차들로 가득 차고, 시장 현황을 모르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오히려 창업에 방해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되도록 정부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절차에 쏟을 시간과 에너지는 고객에게 투자할수록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경험에서 우리나라 조연은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다.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양면성은 예비 창업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전 대표는 여성 창업자로서의 고충도 털어놓았다. 낯가림이 심한 그녀는 관계형성에 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참석한 술자리에서는 남성 위주의 술문화 때문에 여러번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술문화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승부해 성과를 거둔 여성 기업인의 사례를 찾아보기도 했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기도 했다. 비슷한 길을 걸었던 인생 선배들을 멘토삼아 자신의 비즈니스에 적용시켜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다.

한 번은 그녀가 기업컨설팅을 받는데, 선배 여성창업자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전 대표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도 했고, 곧 그 사람들이 고객이 되어 따뜻한 후기나 응원피드백을 해줄 때의 그 보람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아마 모든 창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뿌듯한 순간이지 아닐까 싶다.

그녀는 프랑스 여배우 ‘마리옹 꼬띠아르’를 좋아한다며 예쁘고 인사이트 있는 여자를 닮고 싶다고 했다. 키우던 강아지를 아끼는 마음에서 창업을 시작한 그녀의 마음씨는 이미 롤모델에 가까워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후배 창업자들에게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책과 멘토와 운동을 가까이 하라’는 말을 전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먼저 믿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녀의 남다른 소신과 뿜어 나오는 에너지는 앞으로 그녀가 성공하는데 큰 자산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강수훈 청년기자  
kshcoolguy@hanmail.net

-청년문화기획자  
-스토리박스 대표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 **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